

산유국에 소득 1조8700억달러 유출

유가 140달러선 유지하면 중동으로 9000억달러 ... 미국 5560억달러 지불

원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 선을 유지하면 석유 소비국에서 산유국으로의 소득 유출규모가 연간 1조8700억 달러(약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1970년대 2차레에 걸친 오일쇼크 당시의 <부의 이전>을 웃도는 것으로 9000억달러가 중동으로 흘러들게 된다.

또 러시아 등 옛 소련권에 3800억달러, 아프리카에 3100억달러, 중남미에 1590억달러가 각각 유입된다.

원유 대금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5560억달러에 달하며 유럽은 5330억달러, 일본은 2300억 달러, 일본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이 5540억달러를 각각 원유 수입에 사용하게 된다.

원유 대금으로 유출되는 소득의 규모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일본은 5.3%, 미국 4.2%, 유럽 3.7%이다.

추산치는 영국 BP(British Petroleum)의 통계 등에 근거한 것으로 원유 무역량이 2007년 수준을 유지하고 원유가격이 2008년 말까지 배럴당 140달러 선에서 거래될 때를 상정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수입국이 중동과 러시아 등 산유국에 지불하는 원유 대금을 계산한 것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30>